

# 경기불황에 따른 자영업가구의 재정비율의 변화분석 - 1997년 대비 1998년의 재정비율분석 비교 -

Analysis of Financial Ratio Change in Self-Employed Households with  
Economy Depression - A Comparison between year of 1997 and 1998 -

계명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정보전공  
조교수 배미경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Bae, MiKyeong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문헌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inancial ratio change of self-employed households between 1997 and 1998. The data were drawn from Korean Households Panel Study and utilize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period of time, 1997 and 1998. The sample size in 1997 was 692 households and 600 households in 1998. The mean of financial asset showed that in 1997, self-employed households had much less in liquidity assets, especially in bank-related income, stock, but had more in real-estate, Gye, and private loan than those in 1998. In cases of debt-owned, the self-employed tended to have more debt in non-bank related and it illustrates that the self-employed may experience the difficulties to access the financial assistance in economic depression. Using guideline of each ratios, for six financial ratios, self-employed could meet less proper levels in 1998 compared to those in 1997. It proves that the economic crisis affect the stability of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self-employed households and types of financial assets changes because of the stability.

◆ key word: 재무비율, 자영업가구, 경제불황, 자산구조

## I. 서론

1997년 12월 5일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거시경제정책, 금융 및 노동부문, 기타 산업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여 상당수의 가계가 재정위기를 맞이하여 소비자파산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는 기업의 부도와 대량 실업을 가져왔고 계층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 되었고 가족들은 소득감소에 따라 생활양상이 변화하였으며 새로운 소비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실직의 불안과 다른 심리적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소비생활에 있어서는 구매 품목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소비를 줄이는 내핍소비가 나타났고 저축률의 변화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위기는 정부정책의 문제와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그리고 소비자의 과소비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97년 12. 23일 투자부적격인 B+에서 99년 1.26일에 투자적격으로 전격 상향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사실상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다(문화관광부, 1999)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전반적인 국가의 신인도는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비해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이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IMF 국제금융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으로 국민의 경제적인 고통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경제변화로 인해 사회보험의 일환인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부실해진 것은 경기불황과 관련하여 계층별 소득 및 자산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가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영업자의 비율은 경기가 불황이며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에 더욱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소득과 자산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과 금융자산을 분석하고 소비행동과 투자행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경제

불황이 자영업자 가구의 금융자산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영업가구의 대부분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가족기업은 모든국가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왔고, 오늘날 경제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가구는 거시경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일련 경제정책의 입안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 가구의 소득과 자산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보다 적절한 세금부과정책 및 자영업 소규모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각종 금융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일환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자영업자의 세금부과정책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영업가구의 투자행동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의료보험의 수가가 보험료 부가를 위한 적절한 등급을 나누는데 있어서 자산보유상황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자영업가구를 대상으로는 보다 면밀한 소득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세금납부를 위한 국제청의 보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실질소득이하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세금부과정책의 형평성을 위해서 자영업 가구의 자산구조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기업의 형태를 지니는 자영업 소규모 기업의 육성이 지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생존과 더불어 지역생계형인 자영업 소규모 유통 및 제조업의 생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생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가구의 재정적인 안정과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변동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재무구조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영

업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 및 기타 경제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재무비율분석은 자영업가구의 경우 봉급생활자에 비해서 자산구조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1997년에 비해 1998년도에 자영업가구의 재정비율의 변화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을 측정하여 경기불황이 자영업가구의 자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영업 가구의 금융보조정책이나 기타 세금부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 II. 문헌고찰

### 1. IMF이후의 경제적 변화

#### 1) 실업자 급증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이 가시화되어 본격적인 '저성장·고실업시대'로 진입하게 되면서 실업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8년 실업률은 97년의 2배 수준인 5.0%이며 80년대 오일 쇼크에 따른 경기 침체시 5.2%이후 최고 수준의 기록이었다(삼성경제 연구소, 1997). IMF가 요구한 고금리, 긴축재정,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노동 연구원이 6월 11일 발표한 '향후 실업전망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연말 실업자수가 1백 60만명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성우·김재필, 1998.6). 자영업자의 비율은 경기가 불황이며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에 더욱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황덕순·주문자, 1999), IMF이후 경제적인 변화는 자영업가구의 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가계 재정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계층구조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하여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중산층은 쇠퇴하며 최하위 계층인 홈리스는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계층구조가 변화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고금리 등으로 인해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20-40%의 매출감소를 경험하는 반면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은 매출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남의 고급살롱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이성우·김재필, 1998.6).

계층구조의 안정과 사회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이 변화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비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들은 중산층을 다원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핵심계급으로 간주한다. 즉 중간계급이 상류계급과 하류계급의 갈등 완화와 조정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한다고 한다. 1960년 20.5%에 불과하던 중간계급이 1990년대에 41%로 늘어났었다(홍두승, 1992) 즉 1997년 초에만 해도 자신이 속하는 계층이 중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98년 2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위기이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4년의 81.3%에서 71.1%로 10.2%줄었으며 하류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11.7%에서 23.7%로 두배정도 늘어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8.2).

전반적인 임금감소와 실직 등은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계층소득을 100으로 할 때 97년 75.6%이던 중산층 소득이 98년, 99년에는 68%로 하락되었다(이성우·김재필, 1998.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 가구의 소득변화 및 자산구조변화는 경기변동에 민감히 반응하므로 봉급생활자에 비해서 경기불황에 따른 계층구조의 변화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 소득계층별 평균소득의 변화 및 평균자산보유액을 살펴봄이 바람직하다.

### 3) 경기변화

외환위기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이 나타났

으며 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외화부족과 외화수급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환율불안은 지속되었으며 IMF의 요구대로 통화증가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자금공급감소로 금리가 상승하여 고금리가 지속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축소경영 추세로 장기투자자금 수요는 위축되나 신용경색에 대비한 운용자금 수요는 증가하여 금리가 상승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파산과 부실채권정리로 자금증개기능이 저하되어 건실한 금융기관도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자금공급을 억제하므로 금리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삼성경제 연구소, 1997)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 물가 또한 급등하여 소비자 물가가 95년 100으로 볼 때 96년 104.9, 97년 109.6, 98년에는 121.0%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고물가 상태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99년 1월 1.5%의 상승률로 하향안정세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홈페이지)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는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내수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일반기계, 철강 등의 업종은 전 산업 평균 이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한국산업은행, 1998). 황덕순·주문자(1999)의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변인과 금융자산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모든 소득과 금융자산이 서로 상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소득과 금융자산이 경기변화에 따라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봉급생활자에 비해서 가계의 재정상태가 경기변동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재정비율분석

### 1) 재정비율분석 문헌연구

재무비율이란 원래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비율로서 재무제표상에 표기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을 뜻한다(박정식, 1997). 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재무비율을 가계에 도입하게 된 것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단순히 소득과 지출 등 한 측면만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을 사용하여 재정상

태를 평가하고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계로 하여금 재정목표에 도달하도록 적절한 저축과 투자유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특정 가계의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목적에도 적절하다(DeVaney, 1993).

개인 및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측정 방안도 모든 목적에 적합할 수는 없다(Crystal & Shea, 1990). 즉, 개별 가계의 포괄적인 재정상태와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목적과 측정대상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을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Quinn, 1987; Radner, 1992) 이는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경제적 지위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은 중요하다. 가계가 보유한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수량적 분석은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하지만 가계가 재무적인 긴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순자산 지표를 적용할 경우, 이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Hong & Swanson, 1995).

가계가 보유한 경제자원의 수량적 측정과 함께 둘 이상의 경제적 요인들간의 재무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경제상태 분석에 대한 판단요류를 감소시키고 집단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Lytton, Garman과 Porter(1991)는 재무비율을 적용하면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많은 요인들을 단순화시켜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무비율은 가계가 달성해야 할 재정적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가계가 실제로 어떠한 재무행동을 하는가를 측정하게 해준다. 나아가 재무비율은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제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가계의 재무유형의 분석 및 재무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가계의 재정복지를 위한 논의와 분석의 출발선이 될 수 있으며 가계로 하여금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저축과 투자유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DeVaney, 1993).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재무비

율의 측정방안은 소득과 지출, 저축과 부채에 초점을 두었으며,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따라 선택되는 항목이 다르게 제시된다.

Prather(1987, 1990)는 Griffith가 제안한 16개의 재무비율의 표준을 세우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5개의 재무비율을 밝혔다. 즉 ① 월평균 지출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월평균지출), ② 총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총부채), ③ 비담보(non-mortgage)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비담보 부채), ④ 단기부채와 기타 부채의 연간상환액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단기부채와 기타 부채의 연간상환액), ⑤ 자산의 순가치와 유형자산의 합에서 주택의 가치를 제외한 것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산의 순가치+유형자산-주택의 가치/순자산) 등이었다.

DeVaney(1994)는 가계파산의 예측에 대한 재무비율의 유용성을 시험한 결과 ① 유용성 ②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자산/부채) ③ 가처분소득에 대한 연간 총부채 상환액의 비중(연간 총부채상환액/가처분소득)이 가계파산을 예측하는데 유의하였다고 하였다.

재무비율을 이용한 국내의 연구로는 양정선(1997)과 김연정(1998)이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비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윤지·최현자(1998)의 연구에서는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재무비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4가지유형의 재무비율-소득에 대한 소비비율과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다시 9개의 하위비율을 통해 측정하고 각 비율의 준거기준에 근거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하였다.

## 2) 재무비율의 종류

### (1) 총지출/총소득의 재무비율

현재의 재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 Lytton, Garman과 Porter(1991)는 모든 지출총액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제안하였다. 이 재무비율이 1보다 작은 경우는 가계의 소득액에서 지출을 하

고 난 후에도 가계가 잉여소득이 있어 순자산을 늘릴 수 있으며,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저축이나 재정목표를 위한 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재무비율이 1인 경우는 소득과 지출의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져 가계수지상의 변동이 없게 된다.

반대로, 재무비율이 1을 초과할 경우는 현재의 지출이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며, 재무비율의 값은 그 초과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총지출/총소득의 비율이 1을 넘는 경우를 "초과지출"로 정의한다. 지출은 정상소득, 크레딧 또는 저축의 해약을 통해 가능해지는데, 이 때 지출이 현재소득을 상회하면 부채는 증가되고 자산은 감소하여 순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총지출/총소득의 재무비율은 재무상담이나 재무계획을 함에 있어서 가계의 현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재정지표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간단하고도 매우 효율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 (2) 유동성 비율

Winger와 Frasca(1989)는 부채의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적절한 부채란 제 시기에 청구서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순자산은 많지만 이것이 주택과 같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의 형태라면, 이 가계는 비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총자산 중 일부를 현금 또는 예금과 같이 유동적인 부분에 할당해야 하나 현금이나 예금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적절한 가처분소득과 유동자산의 비율, 단기부채 대 유동자산의 비율 등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유동자산 대 가처분소득의 비율은 가계의 비상금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의 3~6개월 분의 유동자산이 필요하며, 유동자산 대 단기부채의 숫자가 클수록 유동성이 커지며 1.0을 넘으면 건실한 재정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Garman과 Forgue(1994)는 유동성 비율을 가계가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월평균 지출을 포괄할 수 있는 비율로 유동(금융)자산 대 월평균 지출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적절한 유동성은 일시적인 화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에서 가계를 보호하며, 유동성 비율은 유동성 문제를 경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보통 가계의 총자산이 증가하면 총부채도 증가하는데 적절한 양의 부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부채의 사용은 지양해야 하며 이 때 과도(excessive)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한 자산과 소득에 기초한 비율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 (3) 부채부담비율

가계재정안정의 인식에 관한 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과 개인별 부채 부담 뿐 아니라 Prather (1987)가 제안한 5개의 재무비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월평균 지출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월평균지출), 소비자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소비자부채)이 가계 재정안정에 대한 인식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총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자산은 강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Lytton, Garman & Porter, 1991)

### (4) 자본축척비율

순자산은 자산과 부채의 구성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일련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Oliver & Shapiro, 1990; DeVaney, 1995). 투자자산은 가계의 포트폴리오에서 예금과 장기저축성 상품을 포함한 유동자산(liquid asset)에 비해 수익성 자산의 성격을 가지지만 유동자산에 비해 현금화에 다른 자산가치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에 비해 유동자산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현금가치의 손해 없이 현금으로 쉽게 전환되는 자산이다.

Lytton, Garman과 Porter(1991)는 이 비율을 가족의 생애주기에 적용하여 형성기 가계는 생활비를 쓰고 남은 적은 액수만이 가계투자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성기 가계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투자자산의 비율은 20%미만의 매우 적은 비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투자자산/순자산의 재무비율은 가계소득의 향상과 가족생애주기상 확대기 동안의 정(+)의 저축을 통하여 투자자산을 누적함으로써 가족의 생애주기가 진전될수록 투자자산/순자산의 비율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안정적인 재정지표는 투

자자산이 순자산의 최소한 25%가 될 대라고 하였다. Garman과 Fargue(1994)는 개인이나 가계가 은퇴연령에 이르면 평생동안 누적된 자산의 증대로 인하여 이 재무비율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자료

본 연구는 1997년, 1998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1993년부터 1차 실시되었으며 1997년 5차 KHPS(Korean Household Panel Study)에서는 가구용 설문지의 표본 가구 중에서 5.5%가 탈락하여 가구용 설문지의 표본 가구 수는 2724가구였다. 1998년 6차 KHPS에서는 가구용 설문지의 표본 가구 중에서 11.9%가 탈락하여 가구용 설문지의 표본 가구 수는 2,468가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 중에서 자영업자 가구만 포함시켰으므로 1997년은 692가구 1998년은 600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 1998년 표본은 모두 1997년 표본과 동일하며 1998년에 탈락된 92가구는 보다 많은 표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1997년 표본에 포함시켰다.

### 2. 측정도구

1) 자영업가구: 자영 소규모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직업의 구분에서 일반상업 및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가구를 포함한다.

### 2) 재무비율

본연구에서 사용한 재무비율은 7가지로 나누어지며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진다. 구체적인 재무비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소득대비 소비지출 비율

<비율1> 월평균소비지출/ 월평균가처분소득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 현재의 재정적 지위를 측정하며 Lytton 등(1991)이 제안하였다. 1.0을 초과하면 생활비가 가처분소득을 초과함을 의미하므로 1.0미만을 준거기준으로 하였다.
-------------------------------	--

## ② 유동성 비율

<비율2> 유동자산/월지출액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평균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적정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Griffith (1985)가 제안하였다. 각 가계는 3~6개월간의 지출을 견딜 수 있는 비상자금의 필요하므로 월지출액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 3.0을 초과하여야 한다.
<비율3>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평균 지출의 대리변수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여 측정된 유동성비율로 일년의 1/4(3개월)이라는 의미로 0.25가 제시된 것이며 DeVaney(1994)의 제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비율4> 유동자산/순자산	총순자산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중을 평가할 때 이용하며 구체적 재정목표 평가시 필요하다. 순자산의 25%이상을 유동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유동성을 지닌 가계라고 할 수 있다

## ③ 부채부담비율

<비율5> 유동자산/총부채	유동자산으로 가계부채 상환에 관한 재정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Griffith (1985)는 이 비율의 기준을 총부채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부채상환에 필요한 유동자산의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율6> 총부채/순자산	가계의 지불능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총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무관리를 해야 하므로 1.0 미만이 준거기준이다.

## ④ 자본축적비율

<비율7> 투자자산/순자산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Lytton 등 (1991)이 제언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준거 기준은 0.2초과이다.
-------------------	--

## 3) 분석방법

1997년 자영업가구의 재무비율과 1998년 자영업가구의 재무비율 분석을 각각 실시하고 두 기간의 재무비율의 변화를 평균값과 % 변화로 비교하였으며 금융자산구조 평균액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SAS의 Univariate, Mean절차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화

1997년 자영업가구중 92가구가 1998년 표본에서

탈락하였으므로 가급적이면 모든 표본을 포함시키기 위해 각각의 연도의 표본을 독립된 표본으로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자영업자 가구의 특성을 소득,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지역의 5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인구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1). 1998년도에는 이 전년도에 비해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중간소득 층인 가구가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라 자영업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모든 소득 층에서 크게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표본의 연령변화는 1998년의 표본가구가 1997년 표본가구보다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연령층의 비율이 크게 감소되었고, 교육수준

〈표 1〉 자영업자 가구의 특성변화 \*

인구통계학적 특성		1997		1998	
		빈도	%	빈도	%
소득	100만원 미만	163	23.6	232	38.7
	100~200만원	303	43.8	250	41.7
	200~300만원	157	22.7	79	13.2
	300~400만원	34	4.9	17	2.8
	400만원 이상	35	5.1	22	3.7
연령	25~35세 미만	135	19.5	93	15.5
	35~45세 미만	319	46.1	258	43.0
	45~55세 미만	142	20.5	142	23.7
	55~65세 미만	77	11.1	81	13.5
	65세 이상	19	2.7	26	4.3
교육수준	무학	30	4.4	20	3.4
	초등이상	84	12.2	68	11.4
	중등이상	109	15.8	103	17.2
	고등이상	315	45.5	271	45.2
	전문대	54	7.8	48	7.9
	대학 및 대학원 이상	100	14.4	90	14.9
지역	서울	272	39.3	279	46.5
	5대도시	158	22.8	111	18.5
	중소도시	186	26.9	108	18.0
	군부지역	76	11.0	102	17.0
결혼 여부	기혼	649	93.5	560	93.3
	미혼	12	1.7	11	1.8
	기타	30	4.5	29	4.9
n=		692		600	

\* 표본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 1997년 1998년 자료를 독립된 표본으로 처리함

의 경우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1998년도 가구에서 비율이 소폭으로 감소하고 중등학교의 경우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1998년의 표본은 1997년에 비해서 서울지역의 가구가 대폭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와 5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표본에서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표본에서 기혼자의 비율은 두 해 모두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 2. 경기불황에 따른 자영업자의 자산구조 변화

다음은 두 해에 걸쳐 자영업가구의 자산구조항목

평균보유액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산구조 항목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주식, 채권, 보험, 계, 사채, 부동산은 총 자산으로, 은행권 부채, 비은행권 부채, 월부 및 외상은 총부채로 합산되고 총자산과 부채를 이용하여 순자산을 유도하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소득과 소비지출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물가를 반영하고, 동시에 통계적인 검증절차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차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두 해의 표본을 독립된 표본으로 간주하였기에 각각의 항목이 총자산과 총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를 이용하여 자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2〉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제



〈표 2〉 자영업자의 자산구조 변화

자산형태	평균보유액 (단위: 만원)		
	1997(%)	1998	구성비 차감
제 1 금융권	871.74 (22.5)	726.99 (15.7)	-
제 2 금융권	201.82 (5.21)	208.85 (4.51)	-
주식	64.24 (1.66)	44.54 (0.96)	-
채권	1.62 (0.04)	52.80 (1.14)	+
보험	15.00 (3.87)	12.12 (0.26)	-
계	244.49 (6.31)	546.82 (11.8)	+
부동산	2339.27 (60.4)	3258.68 (70.4)	+
사채	149.51 (3.86)	164.44 (3.55)	-
총자산	3872.68	4626.90	
은행권 부채	1059.35 (75.63)	1047.86 (66.10)	-
비은행권 부채	311.74 (22.26)	498.15 (31.42)	+
월부 및 외상	29.61 (2.11)	39.35 (2.48)	+
총부채	1400.70	1585.36	
유동자산	1533.41	1368.22	
순자산	2471.98	3041.54	
투자자산	1154.42	3053.66	
소득	201.59	162.83	
소비지출	183.60	168.89	

1 금융권을 통한 자산 보유액의 구성비가 대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주식보유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안정적 자산의 형태인 채권보유액이 증가하였고, 특히 부동산보유액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경기 불황시에 이러한 안정적 자산보유율이 증가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각 자산형태별 보유율을 비교해 본 결과 1997년에 비해 1998년은 금융권 자산 보유율이 감소하고 채권과 부동산 보유율이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경우 경제위기이후 은행권 부채율보다는 비은행권 부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액이 평균지출을 초과하였으나 경기불황이후 평균소비지출이 평균소득액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즉 전년도에 비해 평균 소비지출액은 감소하였음에도 소득의 감소율만큼 대폭으로 감소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 3. 경기불황에 따른 재무비율의 변화: 준거기준 분석

재무비율을 통해 자영업가구의 재무상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된바와 같다. 〈표 3〉은 7가지 비율의 중앙값의 변화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 1) 소득대 소비비율의 변화

초과지출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비율1은 소득대 소비비율로 1997년에는 조사대상 가구의 약 57%가 준거기준인 1.0미만을 만족하였으나 1998년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가 45.5%로 전년도에 비해 11.6%포인트나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수준의 증가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비율이 소비의 증가비율에 비해서 적은 폭이었음을 시사하며 과소비율의 증가와는 다르게 해석

〈표 3〉 자영업자 재무비율변화 분석

재무비율	준거기준 (guideline)	증양값		% meeting		Change
		1997	1998	1997	1998	
비율1	<1.0	1	1.12	57.1	45.5	-11.6
비율2	>3.0	3.35	2.89	54.3	48.2	-6.1
비율3	>0.25	3.55	3.34	78.0	69.2	-8.8
비율4	>0.25	2.00	1.85	83.5	77.2	-6.3
비율5	>0.1	1.00	0.45	60.5	53.2	-7.3
비율6	<1.0	0.00	0.00	94.5	95.5	+1.0
비율7	>0.2	1.00	1.00	54.5	48.8	-5.7

〈표 4〉 자영업자가구의 비율변화 비교분석: percentile 분석

비율	5%	25%	median	75%	95%
비율1					
1997	0.46	0.7	0.9	1.16	3.33
1998	0.50	0.79	1.00	1.5	6.08
비율2					
1997	0.01	0.50	3.68	10.01	34.79
1998	0.01	0.01	2.57	8.75	38.57
비율3					
1997	0.01	0.60	3.50	9.91	47.50
1998	0.01	0.03	3.01	10.01	45.93
비율4					
1997	0.00	0.37	2.97	1323.07	6073.00
1998	0.00	0.14	1.86	716	5787
비율5					
1997	0.00	0.00	1.00	1.00	1.67
1998	0.00	0.00	0.49	1.00	1.44
비율6					
1997	-2.08	-1.00	0.00	0.05	1.08
1998	-1.87	-1.00	0.00	0.11	0.96
비율7					
1997	-0.07	-0.00	0.34	1.02	2.21
1998	-0.04	-0.00	0.15	1.02	7.22

되어야 한다. 경제불황으로 자영업가구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개별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 2) 유동성 비율의 변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 단기유동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비율2(유동자산/월지출액), 비율3(유동자산/가처분소득)과 장기유동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비율4(유동

자산(순자산)을 사용하였다. 단기유동성인 비율2를 만족시키는 가계는 1997년 54.3%에서 1998년 48.2%로 6.1% 포인트 감소하였고, 비율3를 만족시키는 가계는 1997년 78%에서 1998년 69.2%로 8.8%포인트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기유동성의 지표인 비율4를 만족시키는 가계는 1997년 83.5%에서 1998년 77.2%로 6.3%포인트로 감소하였다. 즉 유동성비율은 단기, 장기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유동자산의 감소는 경기불황시에 자영업가구가 자금유통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자영업가구의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자금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의 상한선의 폭을 늘리거나 또는 담보대출의 상한선을 늘리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 3) 부채부담비율의 변화

유동자산을 사용하여 일부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재정능력을 나타내 주는 비율5와 순자산을 사용하여 총부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6을 사용하였다. 비율5의 경우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는 1997년의 경우 전체의 60.5%에서 1998년 53.2%로 7.3%포인트 감소하였으나 비율6의 경우는 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다. 자영업가구의 자산구조중 부동산 보유액의 증가로 인한 순자산이 증가가 이러한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과 무관한 유동자산의 감소가 비율5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자본축적비율의 변화

가계의 재무구조 내에서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위해 자산축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비율7을 사용하였다. 비율7은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20% 이상인 가계의 경우 자본축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997년 자영업가구의 자본축적비율은 54.5%, 1998년은 48.8%로 경기불황에 따라 자영업가구의 자본축적비율은 5.7%포인트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변동에 따른 주식경기의 불황,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이자소득의 감소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4. 경기불황에 따른 재무비율의 변화: percentile 분석

〈표 4〉는 1997년에 비해서 1998년의 비율의 변화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5%, 25%, median, 75%, 95%에 해당하는 표본의 평균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4〉에서는 각각의 재무비율 5%, 25%, median, 75%, 95%로 나누어 1997년과 1998년을 비율변화를 상세히 비교하였다. 부채부담비율중 순자산을 이용한 비율6과 자본축적비율인 비율7인 경우 하위 5%, 또는 25%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타난 것은 실제 자영업가구중 부채의 부담이 큰 경우 순자산의 보유액이 0보다 적기 때문에 보여진 결과이다.

소득대 소비비율과 자본축적비율 모두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계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75%가계와 95%가계의 비율이 1998년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 것인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다. 즉 소득대 소비비율의 경우 상위 5%(95%로 표기된)가계, 즉 과소비율이 높은 가구의 비율이 1997년에 비해서 3.33에서 6.08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은 IMF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자영업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율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자영업가구의 경우 1997년에 비해서 1998년 소득의 편차정도를 계층화해서 재정비율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자영업가구의 금융보조정책에 반영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보조가 필요한 자영업가구의 파악이 용이하게 되므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자영업 가구의 소득계층별 자산별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면 금융보조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자본축적비율인 비율7의 경우에도 상위 5%의 가계의 비율이 2.21에서 7.22로 거의 3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 순자산의 보유액 크기에 따라 투자자산의 선호도도 다를 것이며 이것이 경기불황에 의해서 더욱더 가속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대 소비비율과 자본축적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은 percentile 비교분석에서 각 분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표 4>의 결과는 경기불황이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인지도로 여겨지는 투자성향의 차이가 경기침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IMF 구제금융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경기불황을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실로 엄청났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실직자의 양산과 중산층의 몰락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소득계층별로 가계의 자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은 짐작할 만하다. 본 연구는 경제불황이 자영업가구의 자산구조와 재무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1997년과 1998년을 선택하여 두 해 동안 극심한 경기변화에 따라 자영업가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영업가구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산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경제변화에 따른 정책반영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형태별 평균보유액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자영업가구가 총자산에서 제1 금융권 자산보유액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1997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주식투자 비중이 감소하였다. 대신에 안정적인 자산형태인 채권과 부동산 평균보유액이 증가하였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불안정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자산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구입이 용이해지고, 부동산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일부 증가한 것이 부동산 자산보유액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보험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은 IMF이후 보험의 해약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때 매우 타당성 있는 결과이다.

재무비율의 변화를 보면 소득대 소비비율과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그리고 자본축척의 비율1997년보다 1998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가장 큰폭으로 감소한 것은 소득대 소비비율로 자영업가구의 소득감소가 큰폭으로 진행된 것으로 경기불황시 불안정한 소득구조인 자영업가구의 타격이 매우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기변동에 의해 소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가구의 경우 봉급생활자와 구분하여 세금정책이나 기타 금융보조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봉급생활자에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져 일정 소득액이 세금부여의 기준이 되어지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연간 재무비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득액보다는 비율분석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 비율 중에서도 역시 가치분소득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 가장 큰폭으로 감소하여 소득감소의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었다.

부채부담비율의 경우 유동자산을 사용한 경우와 순자산을 사용한 경우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비율이 매우 다르다는 것인데 자영업가구의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자영업가구가 소득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선호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황덕순·주문자, 1999)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율6의 경우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가 90% 이상을 보인 것은 순자산의 구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많은 가계가 은행의 부채로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서구의 경우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순자산을 이용한 부채부담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질 수 있어 비교문화적인 연구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투자자산의 경우 평균보유액은 1998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율7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계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것은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일부 금융권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오히려 경기불황시 투자자산의 증대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IMF 이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된 것을 간접적으로 입

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가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또는 직업별로 세분화하여 재무비율의 변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에 자영업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등을 시행할 때 보다 집중적인 자산구조의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변동에 따라서 세분화된 계층별 자영업자가구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연정(1998).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98학술발표회 자료집, 37-63.
- 박정식(1997). 현대재무관리. 다산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1997). <http://seriecon.seri.org/>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우·김재필(1998). IMF 관리체제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그 의미. 소비자문제연구 21호. 한국소비자보호원, 32-52
- 최윤지·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5
- 황덕순·주문자(1999).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 비교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11.
- 한국산업은행, 1998. 통계정보 한국산업은행(1990).
- 한국은행, 1999. 경제통계정보 한국은행(1999).
- 홍두승(1992). 중산층의 성장과 사회변동.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편. 한울
- Carole G. Prather(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69
- Garman, E. T. & Fargue, R. E(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Griffith. R.(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Lytton, R., Garman, E., & Porter, N.(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3.
- Ruth H. Lytton(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3
- Sharon A. DeVaney(1994).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 Two perspectiv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4.